

보도	2024.12.10.(화) 16:00	배포	2024.12.10.(화)		
담당부서	중소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국 장	(代)문선기	(02-3145-6772)
		담당자	팀 장	이희성	(02-3145-6773)
담당부서	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국 장	김은순	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최영주	(02-3145-7552)

금융감독원, 저축은행·여전사 CEO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'24.12.10.(화)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·여전사 CEO 및 협회 등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,
-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관련하여 각 업권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

저축은행·여전사 CEO 간담회 개요

- ① 저축은행 CEO 간담회**

 - ▣ 일시/장소 : '24. 12. 10.(화) 14:00 ~ 15:00, 금융감독원 내 회의실
 - ▣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김병칠 은행·중소금융 부원장, 중소기업검사1국장 등
 - (저축은행) 7개 저축은행 CEO* 및 저축은행중앙회(수석상무)

* KB, SBI, 금화, 모아, 애큐온, 웰컴, 한국투자 저축은행

② 여전사 CEO 간담회

 - ▣ 일시/장소 : '24. 12. 10.(화) 16:00 ~ 17:00, 금융감독원 내 회의실
 - ▣ 주요 참석자
 - (금융감독원) 김병칠 은행·중소금융 부원장, 한구 중소기업 부원장보, 여신금융감독국장, 중소기업검사3국장 등
 - (여신전문금융회사) 7개 여신전문금융회사 CEO* 및 여신금융협회(전무이사)

* [카드사] 신한, KB, 삼성, 현대 [캐피탈사] 현대, KB, 롯데

II 간담회 논의 내용

1. 현 상황에 대한 평가

□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저축은행·여전사의 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, 건전성 제고 노력도 차질없이 진행중임

○ 저축은행 총수신은 큰 증감 없이 통상적인 수준의 변동을 유지*하고 있으며, 예금 인출 등에 대비한 가용 자금도 적정 수준을 보유 중임

* 저축은행 총수신(조원) : ('24.3월말) 103.7 → (6월말) 100.9 → (9월말) 102.6 → (12.6일) 102.8

○ 여전채 발행* 및 여전사 외화 자금 조달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등 여전사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은 안정적인 상황임

* 여전채 순발행(조원) : ('23.4Q) 2.2 → ('24.1Q) 1.1 → (2Q) 1.7 → (3Q) 4.8 → (4Q~12.6.) 6.3

- 특히 현대캐피탈은 투자수요가 많지 않은 연말 시점임에도 외화 ABS 7억 달러를 발행('24.12.10.)

2. 주요 당부사항

□ 각 업권별로 충분한 가용 유동성 확보 및 비상대응체계 재점검, 부실자산의 신속한 정리 등을 당부하는 한편, 취약 차주에 대한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강조하였음

① 각 금융회사별 충분한 가용 유동성 확보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의 재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관리

- 저축은행은 3중 유동성 대응체계*를 재점검하여 비상시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

* [1단계]개별사 자체 유동성 → [2단계]중앙회 자금지원 → [3단계]한국은행 유동성 공급

②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자산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지속으로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

- 단기손익에 연연하지 말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·공매,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인 부실자산 정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

③ 여전채 발행 및 저축은행 수신 동향 모니터링 과정*에서 특이사항 포착시 감독당국과 신속히 공유 및 대응

*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실시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('23.10월)

④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,

- 중·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의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

3. 업계 발언 요지

< 저축은행 >

- 저축은행업권은 당분간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 전략을 유지할 예정이며,
 - 당면한 PF사업장 재구조화·정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되, 부실 정리를 통해 확보된 신규 여력은 지역 서민 금융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데 집중하겠음

< 여전업권 >

- 투자자들의 불안감 확대 등에 대비하고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해 업권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
 - 최근 안정적인 조달여건을 토대로 서민 금융공급 역할을 지속 추진 하며,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하겠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